

# 민주 대권후보 10월중순 이후 확정

### ■ 대선 6개월여 앞...선출 시기·방법은

## 오픈 프라이머리·안철수 참여 관심

대선 선거일이 2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후보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실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 시기=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22일까지는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지만, 신임 지도부 선출 전 대 날짜가 6월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후보 선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정상 민주당은 7~8월에

야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8월 중순 이후야 대선후보 경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당대표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한길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다. 대선주자들 간의 경선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 오는 7월 27일~8월12일로 예정된 런던올림픽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전국 순회 경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통상 2개월가량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대선후보는 10월 중순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민주당 경선 참여 여부. 정치권에서는 참여를 할 경우에

는 당 내에 세력이 없는 안원장 측에서 경선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당 밖에서 단일화 경선을 치를 경우에도 민주당내 경선이 끝난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권 대선후보는 11월이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 대선후보 선출 시기보다 매우 늦다. 2007년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8월20일 정해졌고 정동영 통합민주당 후보가 10월15일 결정됐다. 2002년에는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4월 27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5월9일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

◇선출 방법=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이 큰 원칙이다. 3일 현재까지 분위기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완전국민경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19대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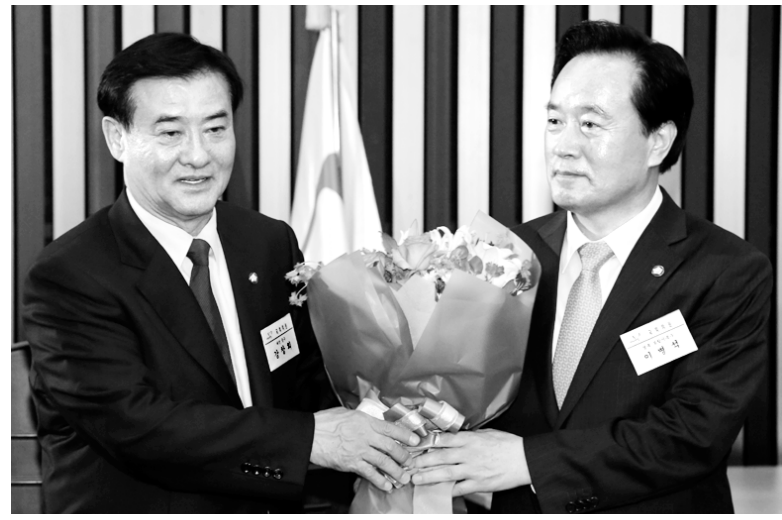
개원 직후 박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완전국민경선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엔 안철수 원장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는 '역선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정당을 먼저 선택하고 그 정당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투표하도록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선 방법, 대통령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당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신임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대선기획단을 발족시켜 세부적인 경선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왼쪽)의원과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병석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함께 들고 있다. 연합뉴스

##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강창희 의원

### 새누리당, 부의장 이병석 지명

친박계 핵심인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19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 투표에서 총 136표 중 88표를 얻어 48표를 기록한 5선의 정의화 의원을 눌렀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에서 맡아온 만큼 강 의원은 5일로 예정된 개원국회 본회의에서 차기 국회의

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여당 몫 국회의부장으로서는 4선의 친이계 이병석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총 130표 중 76표를 획득해 54표를 얻는데 그친 4선의 정갑윤 의원을 이겼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된 강 의원에 대해 "12·12 쿠데타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박탈된 5공 인사"라며 "역사 앞에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국회의장으로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 이정현 인터뷰

# “지역민의 가슴찡한 사랑 보답 호남발전 위해 더욱 분골쇄신”



### 말단 당직자로 출발

### 24년만에 최고 영예

18대 국회에서 '호남 예산 지킴이'로 맹활약했던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됐다.

지난 1988년, 중앙당의 말단 당직자로 발을 들여 놓은 지 무려 24년 만이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호남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이제 현실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3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최고위원은 '호남의 발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축하한다. 소회는  
▲19대 총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호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만큼 더욱 열심히 뛰겠다.

-말단 당직자에서 최고위원까지 왔는데.

▲지난 1984년, 여당 국회의원 비서를 거쳐 1988년 당직자로 특채됐다. 당시, 친지들에게까지 '미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호남의 통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지난 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과거 대선에서 중앙당 전략 기획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자료를 민주당에 빼돌리고 있다는 음

해까지 받았었다. 호남이라서 설움도 많이 받았고 가슴 아픈 기억도 많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호남을 위한 나의 의지를 더욱 단련시켰다.

-최고위원으로서 각오.

▲호남 뒤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 우선적으로 편중 인사를 막는데 가장 신경을 쓰겠다. 19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여권 인맥을 총동원, 지역 현안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창구로서 역할도 기대된다.

▲물론이다. 단순히 공약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공조를 통해 호남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공약 발굴에 나서겠다.

-박근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야당의 입장으로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과거 논쟁이나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세는 민주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 발전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해 짧게 설명한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가하셨듯이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자로 생각한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미흡했던 민주화와 인권, 분배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법과 원칙,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남의 지지세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민께 드릴 말이 있다면.

▲지난 총선을 포함, 그동안 너무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다시 생각해도 감사함에 가슴 한 구석이 찡하다. 정치를 하는 동안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오병윤 통합진보 당원비대위 위원장

# “혁신비대위의 당 지휘 권한 인정”

통합진보당 당원비대위 오병윤 위원장은 지난 1일 “혁신비대위가 당의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구당권파인 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신당권파의) 혁신비대위를 당의 공식기구로 인정하라”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혁신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당권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3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경선 비례대표 의원 및 후보자 징계를 위한 2차 당기위를 열고 오는 6일 이틀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 등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기위는 이날 이들과 조윤숙 황선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6일 3차 당기위를 열어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기위는 이들이 6일에도 소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명 관리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또 2일 국회에서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9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다음 달 8일 공식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선출대상은 당대표, 최고위원,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광역시도당 부위원장, 지역 위 위원장, 지역위 부위원장 등이다. 후보등록은 17~18일이고, 선거운동은 19~24일이며, 당원투표는 25~29일이다.

전국운영위는 또 이번 선거에 한해 당원의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아도 투표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8일 열리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선거에서 과반 투표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방법이 동원됐다 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원비대위는 이를 두고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진성당원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해 왔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매투자

-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입찰반 / 회비 550만원(4명 한)
- ▶이론반 / 회비 55만원(24명 한)
- ▶특수물건만 취급
- 수료증 단독 / 공동투자가능

---

### 투자자 모집

- ▶경매 물건중 특수물건만 투자
- ▶근저당 1순위 설정 / 기동기
- ▶투자금 1억원 이상
- 년 20~50% 수익률!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 미래신용정보(주)

친절상담 010-8617-7899

## 전남영암 하루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리점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